

이번 전시는 강임윤 작가가 지난 26년간 타국에서 이어온 삶과, 그 시간 속에서 축적된 감각의 층위를 사유하는 자리이다. 영국에서 12년, 이탈리아에서 10여 년을 살아오며 그는 어느 한곳에 완전히 뿌리내렸다는 감정보다, 여전히 부유하는 감각 속에서 자기 인식을 형성해왔다. 이러한 정서는 그의 회화 전반에 깊이 스며 있다. 정착과 이동, 익숙함과 낯섦이 공존하는 유기적인 흐름은 화면 위에서 자유롭고 대담한 붓질, 흘러내리는 물감의 흔적, 아름다우면서도 무게감을 지닌 색채, 그리고 가로와 세로의 구분마저 유연하게 확장된 화면 구성으로 드러난다. 그 안에서 발현되는 정서는 가변적인 조건들과 긴장 관계를 이루며, 절제된 온도의 인간적 감수성을 환기한다.

강임윤의 작업은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캔버스와 단독으로 마주하는 순간 가장 깊은 몰입에 이르며, 어떤 감각이 먼저 떠오르는지를 기다리고 이미 존재하는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방식으로 작업을 전개한다. 아침의 빛, 저녁의 석양,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공기의 결, 문득 스쳐 지나가는 대화의 여운과 같은 순간들은 작업을 여는 단초가 된다. 이러한 미세한 감각들은 내면에 머물며 서서히 응축되고, 화면 위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전환된다. 그의 회화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보다 이미 존재했으나 미처 인식되지 못했던 감각을 다시 불러내어 머물게 하는 시도에 가깝다.

영국 시기의 작업이 직접적인 붓질과 물질적 흔적을 전면에 드러내는 방식이었다면, 이탈리아에서의 작업은 보다 내면으로 향한다. 감정의 변화,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아온 시간은 화면 안에서 한층 깊고 성숙한 울림으로 전환된다. 특히 가족의 탄생과 양육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분신처럼 여겨왔던 그림을 잠시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아야 했던 경험은 그의 예술관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 시간들은 작업을 삶과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삶과 함께 호흡하는 행위로 재인식하게 만들었다. 이후 그림은 물성과 서사를 다루는 대상이 아니라, 삶과 작업을 대하는 태도가 교차하며 흐르는 하나의 과정으로 자리하게 된다. 화면 속 섬세한 스침, 사유의 머무름과 여백은 이러한 삶의 경험과 맞물리며 최근 작업의 중요한 정서적 결을 이룬다.

재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한 그의 작업을 이해하는 중요한 축이다. 영국 시기에는 인도산 코튼 덕(cotton duck)이나 린넨 캔버스를 기반으로 작업을 이어갔으나, 이탈리아로 거처를 옮긴 이후 그는 재료의 확장 속에서 삼베천을 화면의 바탕으로 끌어들인다. 삼베는 이탈리아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캔버스 재료이기도 하다. 특히 볼로냐의 한 골동품 상점에서 발견한 오래된 삼베천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여성들이 혼수품으로 준비하던 귀한 천으로, 식탁보나 침대보를 만들기 위해 손으로 이어 쓰던 생활의 재료였다. 삶의 시작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 천이 지닌 심리적 상징성은 그의 작업 세계와 깊이 공명한다.

강임윤에게 삼베천은 단순한 지지체가 아니다. 이미 시간과 기억의 흔적을 내포한 하나의 존재이며, 회화는 그 안으로 스며들어 함께 빛어지는 감각의 과정이다. 오래된 구김과

결, 바느질의 흔적은 제거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화면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시간의 표면이 된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다수의 작품 역시 폭 60~80cm 내외의 삼베천 위에서 제작되었으며, 작품의 물리적 크기 또한 재료의 조건에 순응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특히, 〈Now it spring up〉은 네 폭의 삼베를 한 땀 한 땀 이어 만든 캔버스 위에 완성된 대형 회화로, 생활의 노동과 기억, 시간의 축적이 회화적 행위와 만나 하나의 서사를 구성한다.

그의 작업에서 바탕재는 조형 언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삼베천은 물감을 깊숙이 흡수하며, 작가는 그 위에서 그리기와 지우기를 반복하며 화면을 구축한다. 여기서 '지우기'는 단순한 삭제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그리기이다. 덮어내고 걷어내는 행위 속에서 색은 천 내부로 스며들며 침잠하고, 화면에는 시간의 층위가 더해진다. 유화임에도 때로는 파스텔처럼 부드럽고 건조한 질감을 띠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캔버스 천은 물감을 표면 위에 머물게 하며 층층이 쌓아 올린다. 색채는 보다 직접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나며 물성과 마티에르가 강조된다. 하나는 내부로 스며들며 깊이를 형성하고 다른 하나는 표면 위로 솟아오르며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소재의 물성적 차이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재료적 전환은 조형 언어의 변화로 이어진다. 과거의 화면이 직접적인 붓질과 행위의 흔적을 강조했다면, 최근의 작업은 보다 절제되고 조용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흔적을 남기는 것과 사라지는 과정은 서로 다른 방향에 놓여 있으면서도 같은 무게로 공존하며, 더하고 덜어내는 일, 혹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선택은 작가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작가는 완성도를 향한 단선적 추구보다, 어느 지점에서 멈출 것인가를 결정하는 태도에 주목한다. 그 결과 그의 화면은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여러 상태가 중첩된 흔적으로 남는 여정에 가깝다.

전시명으로 쓰인 'Current 기류'는 하나의 이미지에 고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를 스치며 흐르는 비가시적인 연결의 감각이다. 작업은 개별적 완결로 존재하기보다 서로를 관통하며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형성된다. 'Beyond'는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영역, 감각으로만 스며드는 지점을 가리킨다. 이번 전시 《Current Beyond 너머의 기류》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작업의 흐름이 '기류'라는 개념을 통해 보다 선명하게 가시화되는 순간을 드러낸다.

기류와 흐름(하늘), 그리고 그루터기(땅)라는 서로 다른 공간의 층위 속에서 이번 전시는 식물의 성장과 소멸, 그리고 잔존하는 감각의 흔적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바람, 숨, 빛, 물과 같은 비가시적인 요소들은 씨앗의 생성과 확산을 이끄는 매개로 작동하며, 동시에 그루터기와 잔존의 형상은 사라진 것 이후에도 남아 있는 시간의 표면을 드러낸다. 본 전시는 흐름과 흔적, 상승과 침잠, 생성과 잔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너머의 기류 Current Beyond'라는 감각의 생태를 조망한다.

전시에는 2025~2026년에 제작된 신작 31점과 2021년 이후의 미공개 근작을 포함하여 총 36점이 소개된다. 개별 작품들은 독립된 대상으로 완결되기보다 서로의 호흡을 이어가는 하나의 흐름으로 배치된다. 전시장 또한 특정한 시작과 끝을 갖는 서사 구조라기보다, 관람자가 어느 지점에서든 진입하여 감각의 결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구성된다. 작품 사이의 거리와 여백, 침묵과 공기 또한 하나의 조형 요소로 기능한다.

강임윤의 최근 회화에는 이탈리아의 햇살과 공기, 일상의 온기, 자연의 감성이 깃들여 있다. 오랜 타국 생활 속에서 지속된 부유의 감각은 역설적으로 그의 그림 안에서 가장 따뜻한 언어로 정착하고 있다.

작가는 보는 이로 하여금 무엇을 '이해'하기보다 잠시 머무는 경험을 제안한다. 그의 회화는 설명으로 환원되기보다 여러 겹의 시간과 선택이 응축된 상태로 남아 관람자의 감각을 천천히 붙든다. 스며든 색과 지워진 흔적, 남겨진 여백 사이에서 형성되는 긴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은 채 지속되며, 그 미묘한 균형은 작품 앞에 머무는 시간을 이끈다. 아름다운 석양을 본 뒤 오래 남는 잔상처럼,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감정으로. 이번 전시는 그 느리고 조용한 기억의 방식으로 우리 곁에 머문다.